

2023-12-18 (2023-46호)

12월 18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달러 방향성과 엔·위안 변동성, 그리고 수급 긴장감

서울, 12월18일 (로이터)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흐름을 대체로 따르면서도 연말 수급 여건 따라 수시로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5-1,320원이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온건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압력을 키웠고, 원화는 이 같은 흐름을 따랐다.

다만, 기존의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원화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 결과 따른 글로벌 달러의 후속 반응 따라 함께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금주 중에는 연준이 물가지표 기준으로 삼는 미국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시장은 이 결과에 관심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국내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될 만한 이벤트도 있다. 최근 국제 외환시장내 양방향 변동성이 유독 큰 통화 엔화는 주초에 있을 BOJ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재차 보폭을 대거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BOJ는 단기 금리를 -0.1%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0% 내외로 유도하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우에다가스오 총재의 발언 여부에 시장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에 따른 시장 해석따라 엔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원화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은 대출우대금리(LPR)를 결정한다. 지난 8월 중국은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3.55%에서 3.45%로 10bp 인하하는 한편, 5년물 LPR은 4.20%로 동결했다.

지난주 중국인민은행은 LPR 결정에 앞서 MLF(중기유동성창구)금리를 동결해 이번 LPR 금리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내년 중국 경제를 둘러싼 이렇다할 낙관적 전망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 위안 움직임은 원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 역내 수급은 역외 매도에도 역내 견조한 결제수요가 하단을 떠받치고 오히려 환율을 끌어올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디시하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수출의 20일 기준 중간성적은 원화 수급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 1.5조원을 매집한 외인 주식 관련 수급이 외환수급 변수로서의 영향을 키울지 주목된다.

글로벌 달러와 위안 흐름을 따르면서도 원화는 수급을 둘러싼 긴장감과 이에 따른 경계감 속 수시로 잦은 변동성에 노출될 리스크를 각오를 해야할 듯하다.

(박예나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2월18일(월)

-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12:00)

12월19일(화)

- ⊙ 기획재정부: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11:00)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3년 제22차(11.30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2월20일(수)

- ⊙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 (14: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결과

12월21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관세청: 12월 1일~12월 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고빈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국고채 시장의 market dysfunction 모니터링 (12:00)

12월22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1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2월11-18일		중국	FDI (YTD)	11월		-9.40%
12월19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2월	36	34
12월19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 확정치 MM	11월	-0.5%	0.1%
12월19일	22:30	미국	건축허가건수	11월	1.463M	1.498M
12월19일	22:30	미국	주택착공건수	11월	1.360M	1.372M
12월20일	08:50	일본	수출 YY	11월	1.5%	1.6%
12월20일	08:50	일본	수입 YY	11월	-8.6%	-12.5%
12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물	12월		3.45%
12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물	12월		4.20%
12월20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10월		40.78B
12월20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15일주간		194.5
12월20일	22:30	미국	경상수지	3분기		-212.1B
12월21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2월	-16.8	-16.9
12월21일	00: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2월	104.3	102.0
12월21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1월	3.77M	3.79M
12월21일	22:30	미국	GDP 확정치	3분기	5.2%	5.2%
12월21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11일주간	218k	202k
12월22일	08:30	일본	CPI	11월		3.3%
12월22일	22: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11월		
12월22일	22:30	미국	개인소득 MM	11월	0.4%	0.2%
12월22일	22:30	미국	소비 MM	11월	0.3%	0.2%
12월22일	22:30	미국	PCE물가지수 MM	11월		0.0%
12월22일	22:30	미국	내구재주문	11월	2.0%	-5.4%
12월23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12월	69.7	69.4
12월23일	00:00	미국	신축주택판매	11월	0.685M	0.679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18일 (월)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시작 (19일까지)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CNBC 생방송 인터뷰 (오후 10시30분)

12월19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9시30분)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우에다 가즈오 총재 기자회견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애틀랜타 동문회 오찬행사서 연설 (20일 오전 2시30분)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폭스뉴스 생방송 인터뷰 (20일 오전 8시)

12월20일 (수)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월스트리트저널 팟캐스트 출연

12월22일 (금)

- ⊙ 일본은행 10월30-31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中, 2024년 재정적자율 목표 3% 합의... 특별 국채 발행 가능성 - 소식통

12월15일 (로이터) -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이번 주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4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로 합의했으며, 경제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 3명이 밝혔다.

이같은 적자 목표치는 올해 수정된 목표 3.8%보다 낮아 중국이 내년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특별 국채 발행 옵션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책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소식통 두 명은 필요에 따라 추가 지출을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그 중 한 명은 특별 국채 발행 규모가 1조위안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 세 명은 논의의 민감성을 감안해 익명 보도를 요구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특별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2020년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 관련 대책에 자금을 지원했고, 2007년에는 국부펀드 자본화를 위해 1조5500억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1998년에는 국영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2700억 위안어치를 발행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2024년 적자율은 3%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특별 국채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목표치는 보통 3월에 열리는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한편 로이터와 인터뷰한 소식통 세 명은 모두 중국이 2024년에 약 5%의 성장률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 - 연준이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이미 맥기버 로이터 칼럼리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랜드, 플로리다주, 12월14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예정인데, 150bp가 인하되리라는 시장의 예상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목표 지점 자체보다는 그 경로가 평탄할 것인지 여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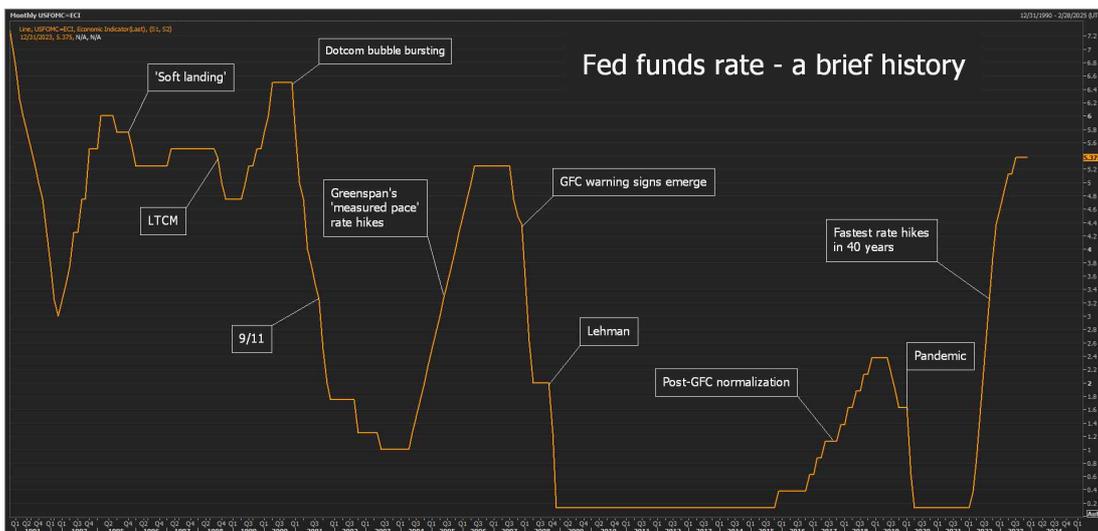
지난 40년 동안의 정책 사이클을 보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제외하고 금리가 신중하게 인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하는 더 빠르고 공격적이었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자산시장, 노동시장, 경제 등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것"을 경계하며,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때쯤이면 이미 무언가가 망가졌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언제 시장, 금융 또는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연준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향후 완화 사이클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 회의당 25bp씩 인하되리라는 현재 시장의 예측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리라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직 당시 매 회의마다 25bp씩 금리를 "신중한 속도로" 인상했던 것이나, 2016~2018년 두 차례 회의마다 한 번씩 25bp 긴축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후 2007~08년과 2019~20년에 단행된 금리 인하는 신중한 속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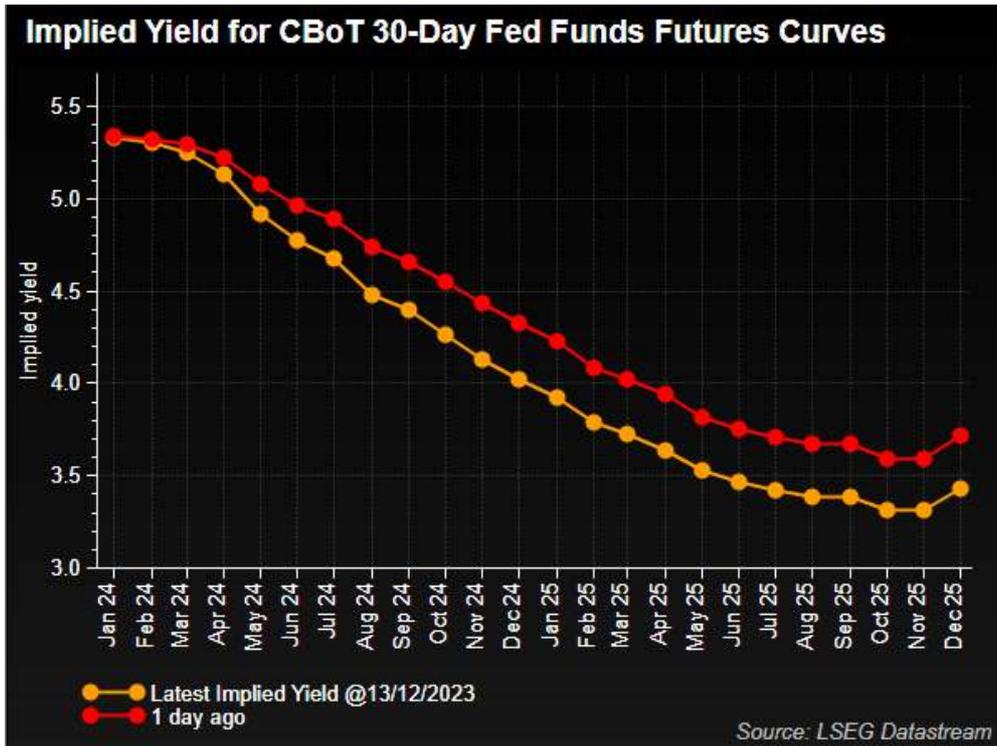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또 한 차례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 섯다운이 곧 닥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둔화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가 가장 힘들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실제로 연준 관계자들이 13일 발표한 수정된 전망에 따르면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2026년까지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주목한 것은 연준의 새로운 2024년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4.6%로 3개월 전보다 50bp 하락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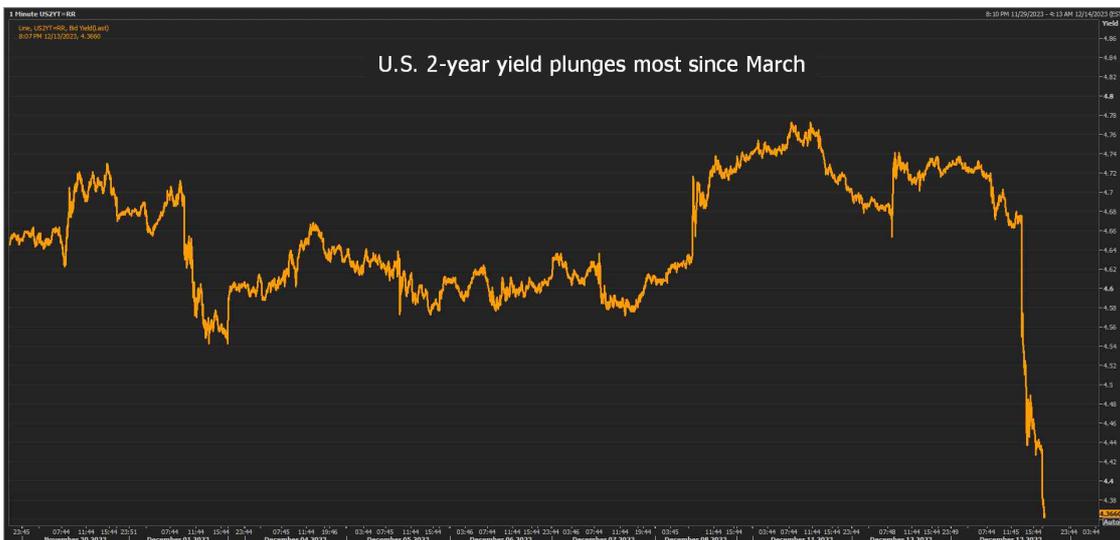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준 관계자들의 새 2024년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9월에 내놓은 2023년 말 전망치 5.6%보다 100bp가 더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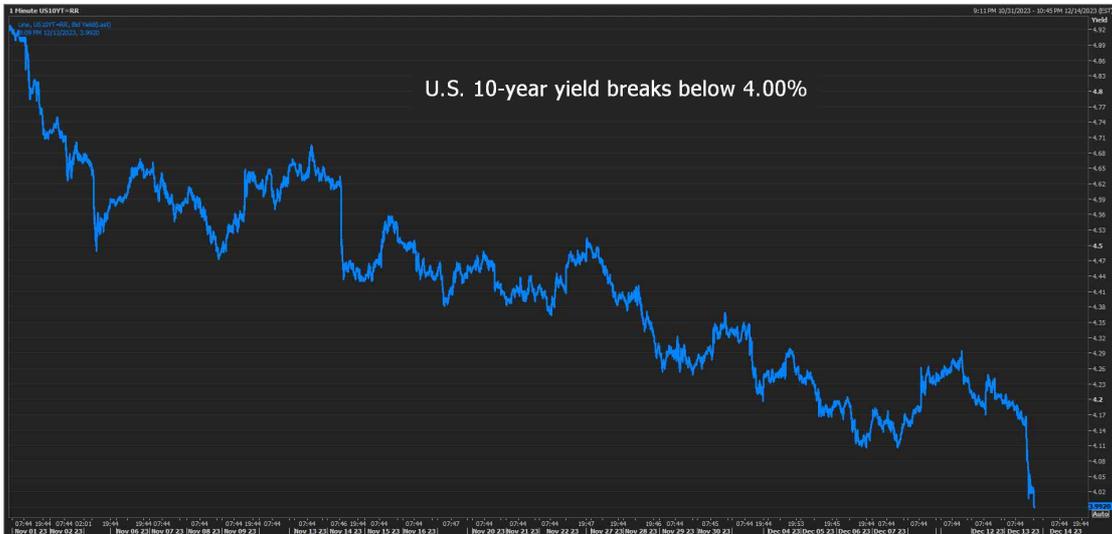


◆ 연착륙

에릭 위노그라드 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 선진시장 리서치 담당 이사는 연준의 새로운 '점도표'는 내년에 금리가 75bp 인하되고, 이후 장기 중립 수준인 2.5%에 도달할 때까지 2025년과 2026년까지 분기당 약 25bp씩 인하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위노그라드는 "이는 평형에 이르는 부드럽고 점진적인 활공 경로인데, 중앙은행들이 항상 목표로 삼지만 거의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연준의 예측이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가 원만하고 고통없이 감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기금금리 목표 레인지가 5.25~5.50%이므로 연준의 장기 "중립" 금리가 2.5%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가 75bp 또는 더 나아가 150bp 인하되더라도 통화정책이 여전히 "제약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11월 대선이 연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D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일찍 금리가 인하될 리스크가 뚜렷함에도 여전히 6월에 완화 사이클 시작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총 200bp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TD증권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치는 현재 금리 선물에 시사하고 있는 150bp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예상되는 인하 시기와 규모는 이전의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과 더 짧아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50bp 이상의 움직임은 매우 일반적이다. 경제가 어려운 '연착륙'에 성공하고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 폭이 각각 25bp에 불과했던 1990년대 중반이 가장 명백한 예외였다.

파월과 그의 동료들은 그런 상황이 재연된다면 더 바랄게 없을 것이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2024 코스피 전망 ①) - 올해보다 한 단계 도약 전망...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서울, 12월12일 (로이터) 문윤아 기자 -

올해 후반 확산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정책 전환) 기대가 내년 코스피의 한 단계 도약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국내 증권사 17곳의 2024년 전망을 취합한 결과 코스피 연중 상단 전망치(평균)는 2775.88포인트, 하단은 2265.63포인트로 올해 연고점과 연저점에 비해 각각 4% 가량 높게 제시됐다.

다만, 내년 코스피 예상치가 올해 대비 상향된 건 맞지만, 그 범위가 25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250포인트 내외에 그쳐 코스피의 폭넓은 랠리 기대감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

코스피의 세부 경로에서는 상반기에 보다 상방 요인이 집중되는 한편,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미국 대통령선거 불확실성 등으로 코스피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수출 회복 등에 내년 상반기 '밝음'

올해 하반기 대체로 부진했던 코스피지수는 11월 10% 넘게 올라 12월 초 25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다.

이 같은 코스피의 강한 반등은 연준이 11월 정책회의에서 금융 여건 긴축을 언급한 데 이어 이후 공개된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 둔화 신호를 보이자 연준 피벗 기대가 확산된 데 있다.

미국 경제성장 및 물가 둔화 추세에 따른 금리인하 단행이 내년 국내외 증시를 떠받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지만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는 시장은 당분간 '갑론을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변하고 재정정책은 긴축보다 부양에 맞춰질 것이다. 주가도 이런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며 주식 비중 확대 시점으로 상반기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의 펀더멘털로 여겨지는 한국 수출은 반도체 수요 개선과 올해 낮은 기저효과에 따라 내년 회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은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다. 1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전년비 7.8% 증가하며 2022년 7월 이후 16개월 만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같은 달 반도체 수출은 12.9% 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수출 증가율은 코스피 연간 수익률과 연관 관계가 높지만, 최근 시장 회복 경로는 역사적 회복 시기보다 변동성이 컸고 시장 가격은 약하게 반영됐다. 이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3.1%)보다 높은 5.2%로 제시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전망은 긍정적이다. 주요 반도체 업체의 감산으로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면서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재고 압박이 해소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본격 상용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대차증권은 "향후 중국발 마일드한 수요 회복과 신흥국 반도체 수요 및 생성형 AI 등 선진국발 새로

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 지속된다면 반도체 이익 영향력은 2024년 진입할수록 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 불투명한 경기 전망

장기간 누적된 긴축 효과, 초과저축 소진에 따른 소비 냉각 가능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기저기 암초가 도사리는 가운데 아직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시장의 확신은 부족하다.

SK증권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금리가 아닌 재정 리스크, 침체 리스크 등 다양한 탐다운 위험 요인들이 밸류에이션을 크게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기에 하반기에는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예측이 어려운 변수까지 포진해있어 증시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공급망 재편과 블록화로 한국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에 주는 미국 대선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높은 외국인 수급 기대

올해 외국인 국내 주식 매수세는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 11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인 순매수 규모는 11.5조원으로, 상반기에 14.7조원을 대거 매집한 반면, 하반기에는 3.2조원을 순매도했다.

종목은 반도체 대형주로 쏠렸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11월까지 외인은 삼성전자(15.2조원)와 SK하이닉스(2.5조원) 두 종목을 17.7조원 사들여 코스피 총 외인 순매수 규모(11.5조원)를 크게 넘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외인발 수급 환경은 연준의 금리 하락 기조, 강달러 압력 둔화, 수출 펀더멘털 개선 등으로 대체로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나홀로 강한 경제 성장에 촉발한 강달러 테마가 약화되고 유가 하향 안정화와 국내 수출 개선까지 더해지며 10월 고점에서 크게 후퇴했다.

삼성증권은 "미국과 미국 제외 주요국 사이의 경기 모멘텀 격차 축소에 따른 강달러 압력 완화는 낙폭이 과대한 신흥시장 증시의 괄목상대 기류 부활과 함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재개를 경유해 2024년 중립 이상의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환경으로 반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피 내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비율은 현재 32% 수준으로 2010년 이후 평균(34%)을 하회하고 있다. 국내외 환경이 예상대로 개선될 경우 외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의 귀환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국내 주식시장 여건 전망 및 평가' 보고서에서 "과거 대비 현저히 낮은 외국인 보유비율과 뮤추얼 펀드 내 비중 미달(underweight)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 유입 여력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 국내 증권사들의 2024년 코스피 예상 범위

증권사	2024년 코스피 예상 범위	
DB금융투자	2150	2950
DS투자증권	2300	2800
KB증권	—	2810
NH투자증권	2250	2750
SK증권	2200	2750
메리츠증권	2200	2700
삼성증권	2200	2750
상상인증권	2450	2900
신영증권	2300	2730
신한투자증권	2200	2800
유진투자증권	2380	2870
이베스트투자증권	2320	2650
키움증권	2300	2900
하나증권	2200	2600
한국투자증권	2200	2650
한화투자증권	2300	2800
현대차증권	2300	2780
평균	2265.63	2775.88

※ KB증권은 코스피 상단 목표치만 제시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2024 코스피 전망 ②) - 예측 어려운 국내외 선거 변수... 공매도 금지 효과 저울질

서울, 12월12일 (로이터) 문윤아 기자 -

한국, 미국 등 줄줄이 예정된 주요국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 산업 및 외교 정책 변화와 함께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이은 후속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은 2024년 한국 증시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 예측 불가의 영역, 선거

내년 1월에는 대만 총통 선거, 3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 4월에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하반기에는 6월 유럽연합(EU)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대만이 1월13일 총통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현재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중도 성향의 민중당 커윈저 후보가 각각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친중 성향의 후보자가 당선되면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4월10일 실시 예정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와 주식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보수 또는 진보 정당의 집권 여부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는데, 거시 펀더멘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깜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는 등 내년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 속 공매도 개선, 증권거래세 폐지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뉴스에 따라 투자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초미의 관심사 美 대선..트럼프 변수 관건

내년 하반기인 11월5일에는 빅 이벤트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 및 우크라이나 지원금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증세 및 외교 중심으로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공화당은 유가 및 물가 안정화, 전쟁 등 외교정책, 세금 감면 등을 민주당 공격 포인트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전후로 시장 내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호 무역주의가 재차 강화되며 동맹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한국과 긴밀히 연관된 정책은 폐기 또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은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도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령 논란 및 낮은 지지율로 민주당 일각에서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신한투자증권은 "대선 시즌은 항상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라며 "대선 직전 정책 불확실성의 급등은 주가수익비율(PER)을 압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매도 금지 효과 '애매'..선거 이후 후속 대응 관심

지난달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했다.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를 살펴보면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코스피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3%대 하락했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약 6% 올랐으며,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는 80% 가까이 급등했다.

공매도 실시에 주가 반응이 제각각이었던 데는 공매도 금지 조치 그 자체보다는 코로나 부양책과 같은 정책 효과를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시장에 일방적인 호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던 시점에서 정책 기조가 급선회되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도 약해졌다.

지난 6월 MSCI 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을 당시 한국은 공매도 평가 항목에서 '문제없음'보다는 낮고 '개선 필요'보다는 높은 '큰 문제는 없으나 개선 사항 존재'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효과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자금 변동성 축소, 중장기적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다만, 국내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현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과거 공매도 금지 상황과 달리 펀더멘털은 개선 신호를 더 보이고 있다"며 "부담 위험 대비 수익이 아시아에서 여전히 우호적이고 반도체 부문의 성장 사이클이 재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의 순풍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6월 이후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내전문가반응) - 금리 인하 신호 보낸 연준... 시장-연준 간극 조절 따른 변동성은 경계

서울, 12월12일 (로이터) -

국내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2월 정책회의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 초점은 내년 금리 인하 시기와 강도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명확한 피벗 시그널을 보냈다. 이날 발표한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중간값은 4.6%로 제시하며 총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또한, 경제전망에서 헤드라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올해 말에 2.8%를 기록한 후 내년 말까지 2.4%로 더 하락하며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품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 금리 인상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다수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 주목하며 사실상 연준의 긴축이 종료됐으며, 이에 달리 약세, 증시 강세, 금리 하락 등 최근 시장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 인하 개시 시점과 강도에 대해서는 연준과 시장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타나는 등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물가 추이 등을 살피며 연준의 고금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너무 오래 가져가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얼마나 오래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가져갈지 고민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언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 물가의 빠른 하락 추세를 감안한 입장 변화일 공산이 크다.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로 종료되었고, 내년에는 경기 둔화 속도를 파악하며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점도표 상 세 번의 금리 인하도 시장 기대(5~6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준과 시장 생각의 괴리로 인한 부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내년 2분기부터 3차례 정도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요인들이 제한되고, 기업 신용여건 약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 기업신용 및 부채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금융안정 리스크 대응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된다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수준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은 과거의 경기부양 성격보다는 과하게 조여 있는

금융여건을 일부 완화시켜 계속해서 경제가 연착륙 경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2월 FOMC 회의 결과가 연준의 피벗 기대감 강화 등 예상보다 완화적 기조를 보인 점은 미국 경기 연착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FOMC회의 결과는 디스인플레이션에 기반한 유동성 랠리를 강화 시킬 공산이 높다. 고금리 상품에 예치되었던 자금이 채권 및 주식 등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머니 무브 현상은 달러의 추가 약세 압력으로도 작용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준에 이어 ECB 역시 금리정책 피벗이 현실화될 공산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달러 약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더욱이 미국 경기 연착륙 현상도 달러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지난 11월 FOMC 이후 다소 가파르게 빠졌던 시중금리 동향이 이번 회의를 통해 오히려 정당화됐다고 평가한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채권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금리 인하가 개시되는 시기나 강도에 대해 시장과 통화당국 간의 간극이 존재함에 따라 단기적인 금리 속락에 따른 제한적인 되돌림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의 내년 6월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만 내년 1분기 동안에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다. (달러의) 점진적인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현 수준에서 급락세를 이어가기 보다는 계단식 하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인덱스 기준으로 100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인 이후 내년 1분기 지나 금리 인하를 반영해 가는 과정에 다시 상하단 레인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1200원 후반에서 1300원 내외에서 등락을 이어간 이후 달러 흐름에 연동에 1200원대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연준 정책 국면이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고금리 장기화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완화 가능성을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둘기파적이다.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는 각각 18~29bp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도 0.9% 하락했다. 여기서 금리 하락 폭이 더 가팔라지기는 한계가 있다. 미국 증시도 사상최고치를 앞두고 기술적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와 금리 전망 하향은 기업 이익과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이다. 최근 중국 증시 영향으로 부진한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연말·연초 분위기는 하방보다 상방우위일 가능성이 높다."

▲ 임제혁,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연준은 여전히 목표 대비 높은 물가와 타이트한 고용여건의 '현상'보다 완화되고 있는 미래 흐름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리세션이 없이 물가가 잘 내려올 수 있으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9월 이후 금리 급등을 유발했던 세가지 요인인 매파적 연준, 견조한 소비, 공급물량 모두 상방 압력이 점차 약화 중이다. 양호한 소비 추이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연준은 고금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강조하며 고용시장의 타이트함 완화에서 추가적인 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당사의 2024년 하반기 4차례 금리 인하와 미국채 10년 금리 기준 3% 중반 하회 뷰를 유지한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연준, 예상대로 금리 동결... 내년 인하 시사

12월14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새로운 경제 전망에서 지난 2년간의 통화정책 긴축이 끝나고 2024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으며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에릭 위노그라드, 얼라이언스벤처스 선임 이코노미스트

"연준의 이번 메시지는 꽤 분명했다. 큰 서프라이즈가 없는 한 금리 인상 주기는 끝났고 향후 몇 달간 인하 리스크는 인상 리스크보다 크리라는 것이다. 시장 반응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되지만 방향은 맞다. 연준은 처음으로 금리 인하의 문을 열었고 이는 중요하다."

◆ 블레어 슈워드, US뱅크 트레이딩 팀장

"이날 연준의 성명과 전망은 꽤 도비시했고 시장이 지난 몇 주간 반영해온 대로였다. 연준의 금리 전망은 시장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확인해줬다. 이는 회사채 발행에도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 엘렌 헤이즌, F.L.푸트남투자운용 수석 전략가

"연준은 명백히 도비시했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 알기 위해 경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any'라는 단어를 사용해 내년 추가 긴축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연준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내년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 지나 볼빈, 볼빈웰스매니지먼트그룹 사장

"연준은 시장에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벗을 시사했다. 시장이 연준 쪽으로 움직였다기보다 연준이 시장 방향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산타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 제프리 로치, LPL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경제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 정점을 시사했다. 연준의 다음 조치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며 내년 중반쯤이 될 것이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노동 시장과 경제 전반의 활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 마이클 브라운, 트레이더X 시장 애널리스트

"오늘 연준은 예상보다 조금 더 도비시켰다. 경제 평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어서 향후 전망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금리 인하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되리라 본다."

◆ 칼 샤모타, 코페이 수석 전략가

"연준은 분명 도비시하게 돌아섰다. 추가 긴축 기준을 올리고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연준 관계자들은 경제 '연착륙'을 확신하는 듯 보였고 이 모든 것은 금융시장의 환호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시범운용 참여 RFI 등록 기간 연장, NDF·선물환한도 포지션 보고 제외 - 기재부

서울, 12월1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될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앞두고 1월부터 시범운용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RFI) 등록 신청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RFI 보고 의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RFI 등록 절차를 개시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운용 기간 중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기한을 당초 12월 말로 제시했지만 이를 내년 3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3일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 RFI로 참여할 의향을 표명한 기관을 비롯해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에 속한 기관들에게 그간 시장 내부적으로 제기됐던 여러 의견들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그간 시장 내부적으로 우려가 컸던 RFI의 보고 의무에 있어 NDF와 ND스왑포지션과 함께 익월 15일까지 보고하기로 한 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 등 선물환포지션 한도 보고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RFI의 선물환포지션 한도에 대해 상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이에 따른 상시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외환스왑 거래 내년말까지 연장 합의

서울, 12월15일 (로이터) -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2024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5일 "지난 4월에 체결한 3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거래를 내년에도 1년간 연장하는데 재합의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기관간 협의하여 추가적인 한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최근 외환수급의 개선에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상존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민연금-한은 외환스왑 계약 체결...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 내년까지 연장 - 복지부

서울, 12월15일 (로이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15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기금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